

도 협 소 식

技術委委員分科委員長會議會議錄

日 時 : 1963年9月24日 下午5時

場 所 : 圖協事務局 小會議室

參席者 : 閔會長 · 白 麟(技術委員長) · 李
載喆(推薦圖書分委員長) · 張一世(目
錄分委員長) 李春熙(定刊分委員長) ·
千惠鳳(分類分委員長) · 朴熙永(調
查統計分委員長) 事務局長 李鍾文
· 幹事 成宅慶

白 麟 = 會長任이 10月初旬에 外遊하심에
앞서 其間의 分科委員會의 各事業의 進
度를 檢討하며 豫算과 比較하여 再調整
할 必要는 없는가 確認하고자 오늘 分
委長會議를 召集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바쁘신中 나와주셔서 感謝합니다.

李局長 = 圖書館協會의 職務를 擔當하면서
恒常 느끼는 點은 圖書館事業이 社會的
으로 認識이 不足하여 遺憾으로 生覺하
는바이나 一便 生覺하면 우리의 努力如
何에 따라 아직도 向上發展 될 素地가
남어 있다는 것을 特히 圖書館法推進을
爲해 活動하는 동안 느꼈읍니다.

이제 8年間의 宿願이었던 圖書館法이
10月內로 制定되리라 믿읍니다. 이 法
이 公布됨으로써 惹起되는 여러가지
問題며 또 今年 우리들이 擔當한 事業
들이 過去 어느때보다 活潑했고 바야흐
로 收穫을 볼 時點에 이르렀다고 生覺
됩니다. 그러면 今年度 協會事業을 어
떻게 이끌어나가 有終의美를 合理的으
로 竣우느냐하는 點을 豫算事情과 併行

하여 解決策을 摸索하자는것이 오늘의
議題인 것으로 압니다.

日前에 亞細亞財團에서 目錄規則 刊
行事業, 推薦圖書刊行事業을 爲해 15萬
餘원이 補助되었읍니다. 이 補助金은 前
記 2個事業에 限하여 使用키로 되어 있
읍니다. 餘他事業에 對한 補助도 지금
交涉中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 展望에
對해서는 豫言키 어렵습니다. 또한 來年
度 豫算으로 現年度線으로 維持될 것입
니다.

成幹事 = (事業費 支出現況과 豫算現況을
油印物에 依據 報告함)

李春熙 = 저 生覺같이서는 두가지 方法을
들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其一은 外
部援助를 推進中이던 事業의 原計劃대
로 推進해 가는 方法과 其二는 外部援助
를 못얻는것이 決定될때 適切히 事業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千惠鳳 = 그렇게 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 分
類分委서는 오늘까지 온갖 어려움을 甘
受하며 事業을 이끌어 왔읍니다. 今年
末까지의 事業限界와 豫算의 決定없이
는 더 推進할 方法이 없으니 이 會議에
서 可否를 決定해 주셔야겠읍니다.

張一世 = 各分委에서는 63年度 豫算을 考
慮치 말고 앞으로 所要될 最少限度의 경
비를 分委長이 今年中의 殘餘事業과 經
費內譯書를 作成하여 檢討해야 될것으
로 봅니다.

白 麟 = 分類分委서는 事業의 性質上 本表만을 先 만들고 끝맺어야 되리라 生覺합니다.

千 惠 鳳 = 豫算事情뿐만 아니라 事業量을 보아서도 本表만을 作成할 수 밖에 現在의 處地로서는 道理가 없겠지요.

李 局 長 = 分類分委長의 計劃대로 本表만을 作成하는 線에서 豫算을 策定하여 決定 지우도록 해보지요?

또한 索引事業도 原稿까지만 作成하고 印刷는 來年으로 넘어 가든지 하는 方法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分委長께서 그런 程度로서 計劃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一同贊成 同意)

會 長 = 今年 1年間の 事業이 너무 過重했든 感이 있습니다. 이러한 莫重한 事業들을 이토록 이끌어 온 것은 오로지 여러 委員들의 勞苦의 結晶이라 봅니다. 이點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現在 協會는 產母의 苦痛과 같은 陣痛期에 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年度末의 結實을 맺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苦生의 繼續이 이처럼 要求되던 때도 圖書館協會가 創設後 이번이 처음이라 生覺합니다. 어려운 與件下에서도 우리의 最善은 다했습니다. 不得已한 事業의 一部를 來年으로 넘겨도 總會나 當局에서도 이點 充分히 理解할 것입니다.

이어서 釜山에서 開催되었던 學校圖書館大會는 全國의 學校圖書館에서 2百60餘名이나 參席하여 類例없는 大盛況으로 이루어졌다는 慶賀스런 參席所感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外遊 스

케줄은 協會에 記錄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委員들의 끊임없는 努力과 事業의 滿足한 成果를 바랍니다.

準備關係上 일이 바쁘니 미리 失禮해야겠습니다.

(會長 退場)

李 載 喆 = 推薦圖書事業은 大端히 不振狀態입니다. 現在 目錄資料 4千5百書目を 蒐集했고 이中 選定하여 百項目可量을 註釋했습니다. 現在 評註는 아니하고 記述만을 하고 있습니다.

李 局 長 = 註釋을 붙이느니보다 書誌情報와 對象의 表識만을 붙이는것이 어떻습니까?

李 載 喆 = 現在의 人員으로서는 年內에 到底히 不可能하니 別途對策을 세우도록 決定해야겠습니다.

(이에 對하여서는 새로운 事業計劃案을 세워서 分委長과 事務局長이 別途 相議하여 處理토록 合議)

張 一 世 = 8月末까지 目錄에 關한 原稿를 完了할 豫定이 었는데 事情에 依해 9月末까지는 完成시킬 計劃입니다.

(脫稿를 10月15日까지 完了됨)

千 惠 鳳 = 分類表는 10月30日로써 原稿檢討가 끝납니다.

李 局 長 = 그럼 昨전에 張先生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各分委別 年度末까지의 事業과 經費內譯書를 만들어서 事務局과 協議하여 更正豫算을 作成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全員 이에贊同)

白 麟 = 그럼 오늘 會議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바쁘신中 感謝합니다.

(7時20分)